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62

요한일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 요한일서

## 1 John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3:18)

*Τεκνία, μὴ ἀγαπῶμεν λόγῳ μηδὲ τῇ γλώσσῃ  
ἀλλὰ ἐν ἔργῳ καὶ ἀληθείᾳ.*

## 요한일서 차례

---

요한일서 서론.....	〈15제〉	… 243
제 1 장 하나님과의 교제 .....	〈12제〉	… 248
제 2 장 그리스도와의 교제 .....	〈27제〉	… 253
제 3 장 하나님의 자녀들 .....	〈19제〉	… 261
제 4 장 사랑이신 하나님 .....	〈15제〉	… 267
제 5 장 하나님께서 난 자 .....	〈16제〉	… 272

## 요한일서 특별 자료 차례

---

제 1 장 〈화보 자료〉 사도 요한 .....	252
제 3 장 〈연구 자료〉 사형 제도의 존폐(存廢) 문제에 대하여 .....	266
제 4 장 〈본장의 요절〉 .....	271

# 요한일서 서론

## 1. ㉠ 요한일서의 발신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의 발신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어 왔다.
- (2) 그러나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였던 요한(마 4:21)이 이런 심오한 내용을 쓰지 못했으리라는 추측과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본서신에서 이단을 공박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본서신에는 발신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어 요한 저작설이 부인되기도 한다(Papias, Dionysius).
- (3) 그러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Policarp)과 폴리갑의 제자 이레니우스(Irenaeus, A. D. 140-202)는 본서신을 요한의 것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초대 교부(初代敎父)들도 본서신을 요한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Clement of Alexandria, Origen, Tertullian).
- (4) 뿐만 아니라 본서신과 요한복음 사이에는 공통된 내용(1:1과 요 1:1, 2, 4, 10; 1:4과 요 15:11; 16:24 등)과 공통된 사상(4:2과 요 1:14; 3:23과 요 13:34 등)이 많이 나온다. 이것을 보더라도 본서신과 요한복음의 저자는 동일 인물로서 본서신의 발신자는 사도 요한임을 알 수 있다.
- (5) 이와 같이 일부의 반대설이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내증(內證)과 외증(外證)에 의해 본서신의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 분명하다.

## 2. ㉠ 본서신의 명칭에 대해 설명하라.

- ㉡ (1) 가장 권위 있는 시나이 산 사본(Codex Sinaiticus A. D. 4C)에는 본서신의 제목이 '요한의 첫 서신'(헬, 이오아누 에피스토레 알파)으로 되어 있으며, 알렉산드리아 사본(Codex Alexandrinus, A. D. 5C)과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4C 중반)에서도 본서신의 명칭이 '요한일서'(헬, 이오아누 알파)라고 되어 있다.
- (2) 그 후 이 명칭은 '거룩한 사도 요한의 공동 서신'(라틴어 사본), '복음의 기자요 사도인 요한의 첫 서신'(헬리어 사본) 등으로 불리다가 점차 '요한이 쓴 첫번째 서신'으로 굳어졌다.

## 3. ㉠ 본서신의 기록 장소와 연대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신에는 기록 장소나 연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서신의 문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신앙적으로나 연령상으로 매우 성숙한 상태에서 본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2:1, 12, 14, 18).
- (2) 또 본서신에는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닌 옛 계명(2:7, 8; 3:11)으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예수의 가르침(요 15:13)이 형제를 위해 제 목숨을 버리라는 요한의 명령(3:16)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요한에게 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화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것을 볼 때 본서신은 요한복음보다 더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3) 이상을 통해서 볼 때 본서신은 A. D. 90년경에 기록된 요한복음(Irenaeus, Ignatius)보다 더 후대인 A. D. 100년경, 즉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 본서신의 발신자인 요한에 대해 약술(略述)하라.

- A** (1) 야고보의 형제인(막 1:19)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 태어나 하인을 거느릴 정도의(막 1:20)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정도로 결단력 있는 성품의 소유자였다(마 4:21).
- (2) 그는 베드로, 야고보와 더불어 변화산의 신비를 체험할 정도로 예수의 교육을 특별히 많이 받았다(마 17장).
- (3) 그는 최후의 만찬 때에 주의 품에 의지하였으며(요 13:23), 예수가 체포되었을 때 제사장의 집 문안까지 따라갈 정도로 용기 있고 훌륭한 신앙인이었다(요 18:15).
- (4) 그는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와 더불어 초대 교회의 지도자 노릇을 하였으며(행 3:1;4:19), 예루살렘 총회에도 참석할 만큼 초대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 (5) 교부들에 의하면 그는 노년에 에베소에 있으면서(Martyr Justin, Irenaeus) 사랑의 사도로 교회를 돌보았으며, 도미티안 황제(Domitian, A. D. 81-96) 때 밧모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 (6) 그 후 요한은 넬바 황제(Nerva, A. D. 96-98) 때 에베소에서 순교했다는 설(Papias)이 있으나, 트라얀 황제(Trajan, A. D. 98-117) 때까지 살았다는 이레니우스(Irenaeus)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 5. C** 본서신의 수신인은 누구인가?
- A** (1) 본서신은 서간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신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2:1), ‘아이들아’ (2:18), ‘형제들아’ (3:13)라는 호격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일반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 전체에 보내어진 서신인 듯하다.
- (2) 그러므로 본서신은 회람 서신(回覽書信)이 분명하며(pulpit 주석) 나아가서 본서신에 귀기울이는 자는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본서신의 수신인이 되는 것이다.
- 6. C** 본서신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 A** (1) 본서신은 그리스도의 선재설(先在說)과 신인 양성론(神人兩性論)을 확립시켜 정통적 그리스도론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1:1).
- (2) 즉 육체를 경시하며(1:8, 10;2:6;3:8-10) 그리스도의 육체를 하나의 환상으로 보는(4:2-6) 영지주의(靈知主義, Gnosticism)파라는 이단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발생하여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였으므로 사도 요한은 본서신을 쓸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본서신은 이단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 7. C** 본서신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 A** (1)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우리의 본성(本性)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1장)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2:1, 2).
- (2) 둘째,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데(2:22;4:3) 하나님의 말씀안에 거할 때에 이를 물리칠 수 있다(2:24-29).
- (3) 셋째, 사랑은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3:18;5:1-3).
- 8. C** 본서신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 A** (1)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屬性)으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을 싫어하시며(1:5), 그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다(3:16).
- (2) 둘째는, 성육신(成肉身) 교리로서 예수는 생명의 말씀(1:1)이고, 그리스도(4:2)이며, 하나님의 아들(5:5)이신 거룩한 존재인데 그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4:2)이다.

- (3) 세째는, 성령론으로 하나님께 기쁨 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2:20, 27).
- (4) 네째는, 죄론(罪論)과 화해론(和解論)인데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며(참조, 1:6-2:2),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하고(2:1)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5) 다섯째는, 종말 사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며(2:17),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다(4:3).
- (6) 결국 요한은 본서신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죄의 용서와 종말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9. ㉠ 본서신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들을 설명하라.

- ㉠ (1) 본서신에는 '말씀'이 태초로부터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1:1; 요 1:1), 요한은 이 '말씀'이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었고(요 1:2),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도 동참하였다고 하였다(요 1:3).
- (2) 또 요한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1:14)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 (3) 결국 본서신에서 요한은 태초로부터 있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주장하고 있다.
- (4) 둘째는, '생명'으로서(1:1, 2) 이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인데 모든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이 '생명'에 의해서 의(義)를 행하고(2:29)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4:7).
- (5) 세째는, '빛'으로(1:5),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격이 있다. 즉 하나님은 빛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다.
- (6) 네째는, '사랑'인데(4:8)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회생을 의미한다(3:16). 결국 사랑에는 반드시 회생이 따른다는 진리를 보여 주고 있다. 왜냐하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 (7) 다섯째는, '영생'인데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귄을 의미한다(2:24, 25).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요 3:16).

10. ㉠ 본서신에 나타난 이단 사상(異端思想)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신에서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靈知主義, Gnosticism)이다.
- (2)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① 본질적으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과 정신은 올바르게 결합될 수 없다.
  - ② 그러므로 구원받은 영혼이 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는 아무래도 상관 없다.
  - ③ 구원은 구세주를 믿는 신앙보다는 그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 ④ 그리고 영지주의의 지도자만이 이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들만이 빛 가운데 있다.
  - ⑤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의 인성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상에 있었던 예수의 모습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 (3) 결국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神人兩性)을 부인하고 도덕률(道德律)을 무시하였다.
- (4) 한편 이들은 교회에까지 침투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전통적 신앙을 흔들어 놓고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렸다.

(5)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사상들을 반박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5:5), 그리스도이며(4:2),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으로서(1:1), 예수의 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였다(4:2, 3).

11. ㉠ 본서신과 요한복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라.

㉡ (1) 두 책에는 다음과 같은 유사한 귀절들이 있다.

내 용	본 서 신	요 한 복 음
보고 아는 것을 증거함	1:2	3:11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2:11	12:35
예수는 죄가 없음	3:5	8:46
세상이 신자를 미워함	3:13	15:18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3:14	5:24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	3:16	10:15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함	3:22	8:29
서로 사랑하라	3:23	13:34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의 말을 들음	4:6	8:47
그리스도도 영생이다	5:20	17:3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있다.

- ① 본서신에는 예수의 인성(人性)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4:2), 복음서에는 신성에 대한 교리(요5:27; 6:64; 13:1; 17:15)가 지배적이다.
  - ② 말세론(末世論)에 대해서도 본서신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2:18, 22), 복음서는 재림(요14:2, 3), 심판(요3:18; 5:27), 부활(요20장)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본서신에는 복음서보다 화목(和睦)의 교리(2:2; 4:10)가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 ④ 본서신은 구약을 거의 인용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요 1:23; 2:17; 6:31, 45; 10:34; 12:15; 15:25; 19:24, 37).
-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요한이 저술한 두 책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신학적 관점의 차이요, 또 서신으로서의 특수한 문체가 이런 차이점을 낳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4) 결국 이런 차이점은 다른 저작설을 유리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진리의 영역을 더욱 심오하고 다양하게 해준다.

12. ㉠ 본서신의 문체에 대해 설명하라.

- ㉡ (1) 첫째로, 서간문인 본서신은 그 문장이 간결하며 함축성을 띠고 있다.
- (2) 둘째로, 본서신은 중요한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법(對照法)을 사용하고 있다(1:5; 2:4).
- (3) 셋째로, 본서신은 반복법이 사용된다는 문체적 특징을 지닌다. 본서신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4:8, 16)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2:5; 4:12)는 말이 여러 번 나타난다.
- (4) 네째는, 대구법(對句法)의 사용이 빈번하다는 특징을 지닌다(1:8-10).
- (5) 이같이 본서신이 간결하긴 하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문학적 기교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흐르는 사상은 장엄하며 또 이단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13. ㉠ 본서신은 공동 서신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이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2, 3서, 유다서와 더불어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에 포함된다.
- (2) 2세기말경에 아폴로니우스(Apollonius)는 본서신만을 공동 서신이라 하였으나, A. D. 310년경에 이르러 유세비우스(Eusebius)가 이미 언급한 7권을 공동 서신이라 하였다.
- (3) 공동 서신은 특정한 교회가 아닌 일반 교회에 보내어진 서신인데 이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책 이 름	줄 거 리
야 고 보 서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
베드로전서	믿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베드로후서	거짓 교훈을 물리치고 덕행(德行)을 촉구함
요 한 1 서	이단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교제함
요 한 2 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생활하라
요 한 3 서	나그네와 전도자를 대접하라
유 다 서	거짓 교사들을 질책하며 성도들이 믿음 위에 설 것을 당부함

14. Ⓒ 본서신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편지를 쓰는 목적 / 1:1-4
- (2) 교제의 조건 / 1:5-2:2
  - ① 빛 가운데 행하라 / 1:5-7
  - ② 죄를 자백하라 / 1:8-2:2
- (3) 교제 안에서의 행동 / 2:3-27
  - ① 계명을 지킴 / 2:3-11
  - ② 악에서 떠나라 / 2:12-17
  - ③ 굳건한 믿음을 가짐 / 2:18-27
- (4) 교제의 특징 / 2:28-3:24
  - ① 자신을 깨끗하게 함 / 2:28-3:3
  - ② 의와 형제를 사랑함 / 3:4-18
  - ③ 구하는 대로 응답받음 / 3:19-24
- (5) 교제를 위한 주의 / 4:1-21
  - ① 거짓 영을 조심하라 / 4:1-6
  - ② 하나님 안에 거하라 / 4:7-21
- (6) 교제의 결과 / 5:1-21
  - ① 형제를 사랑함 / 5:1-3
  - ② 세상을 이김 / 5:4, 5
  - ③ 삼위(三位)를 증거함 / 5:6-12
  - ④ 영생을 확신함 / 5:13
  - ⑤ 형제를 위해 기도함 / 5:14-17
  - ⑥ 우상을 멀리함 / 5:18-21

15. Ⓒ 본서신의 요절은 무엇인가?

- Ⓐ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3:18).

# 제 1 장 하나님과의 교제

단락구분 1-4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 5-7 하나님은 빛이시다 / 8-10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5 우리가 서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지니와

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 만일 우리가 죄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그리스도가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다는 선재설(先在說)과 바로 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밝히고 있다. 한편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자들은 죄짓는 자로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 (2) 요한이 이러한 사실들을 본서신의 초두에서 밝히는 이유는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神人兩性)을 부인하는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며 그들이 더욱더 올바르게 신앙 생활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자는 그 시대와 환경에 민감해야 한다. 불의한 사회를 고발하여 하나님의 공의(公義)를 선포한 아모스가(암5:21-27) 그러했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비판하여 회개를 촉구한 이사야(사1:10-20) 역시 그러하였다.
- (4) 그러므로 오늘날의 복음 전파자 역시 이 사회와 교계(敎界)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회를 굳게 세우며 성도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전파해야 한다.

## 2. ㉠ 요한은 본장의 서두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절)

- ㉠ (1) 요한은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태초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아르케)는 창조와 동일한 시대(Westcott)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말씀(요1:1,2)으로서 그 자신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요1:4;14:6)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 이 귀결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창조 당시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다를 말해 준다.

- (3) 위의 사실을 볼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創造事役)에 동참하신 분이며(참조, 창 1:26), 그의 근본 본체(根本本體)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빌 2:5).
- (4) 한편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종교적인 천재나 혹은 종교적 영웅으로서 보통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인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Harnack, Ritschl).
- (5)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경과 신령으로 경배드려야 하는 분(요 4:24)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 '우리'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절)

㉠ (1)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 ①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요한과 더불어 활동한 제자들을 가리킨다.
- ② 요한과 더불어 복음의 확실성을 아는 자를 말한다.
- ③ 단순히 문학 양식에 의해서 복수로 사용되었다(Lightfoot).
- (2) 위의 세 가지 학설이 있기는 하지만 본장에서 볼 때 요한은 예수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와 더불어 활동하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 (3) 한편 요한이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복수 명사를 사용한 것은 그것이 제자들의 공동적인 체험이었음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 (4)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은 자기의 체험을 수신자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다.
- (5) 이와 같이 개인의 신앙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교회와 같은 공동체나 교회 내의 사회 봉사 단체에서 얻는 집단적인 신앙 체험이 더 힘있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4. ㉠ 요한은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확인하였는가? (1절)

㉠ (1) 그는 그리스도에 관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注目)하고, 손으로 만졌다고 했다.

- (2) 여기서 '듣고, 보았다'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완료형(完了形)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사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말로서 요한의 직접적인 체험이 서신을 쓰는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다.
- (3) 또 '주목하고 만졌다'는 말의 헬라어 용법에 나타난 시제(時制)는 부정 과거형으로 과거에 이미 경험한 요한의 체험이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말해 준다.
- (4) 결과적으로 요한은 영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까지도 직접 목격하였다(눅 24:39; 요 20:27). 이것은 요한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였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 (5)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삶의 현장, 즉 직장인은 직장에서 종교인은 사회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몸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라야 한다.

5. ㉠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절)

㉠ (1) 이 생명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1:4; 14:6) 요한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다.

- (2) 이 사건은 죄지은 인간을 구속(救贖)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미 구약 시대부터 여러 차례 약속된 것인데(창 3:15; 사 7:14; 미 5:2) 이 약속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 (3)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啓示)하셨음을 의미한다(참조, 마 11:27).
- (4) 이와 같이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이며, 계시의 종교이다.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출 2:23-25; 마 1:22; 막 14:49).
- (5)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철학이나 사색(思索)으로 알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6. **㉠** 요한이 본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3, 4절)

- ㉠** (1) 요한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교제를 수신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수신자들과 교제를 나누며 또 그들과 더불어 충만한 기쁨을 나누기 원했다.
- (2) 즉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충만한 기쁨을 맛보는 것은 본서신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것은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원만한 교제를 나누며,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이웃과의 교제를 통하여 기쁨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행 4:1-3; 7:55-60)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를 나누며(행 2:42)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았다(행 2:46).
- (4) 그러나 오늘날 기쁨과 교제의 장소가 되어야 할 교회가 분열과 싸움과 교권 다툼으로 시끄러운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쁨과 찬미(讚美)가 흘러 넘쳐야 한다(행 2:46, 47).

7. **㉠** 요한과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수신자에게 전한 소식은 무엇인가? (5절)

- ㉠** (1)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 (2) 한편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조건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요 1:18)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다.
- (3) 그리고 이 빛은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를 정죄하는(요 3:19) 심판과 그리스도를 쫓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요 3:17)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심판과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다.
- (4)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어두움을 사랑하는 죄된 생관, 즉 육체의 소욕(所欲 갈 5:19-21)을 버리고 빛 가운데서 온전한 선물인 성령의 열매(간 5:22, 23)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도 하며 심판하기도 하는 주권을 가진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알아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8. **㉠**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6절)

- ㉠** (1) 그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이다.
- (2) 여기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잘못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요 14:6)를 대적해서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RSV).
- (3)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서도 도덕률(道德律)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였다.
- (4) 사실 우리 주위에는 진리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제(참조, 고전 10:16, 17)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삶도 수반해야 한다.

9. **㉠** 빛 가운데서 행한 결과는 무엇인가? (7절)

- ㉠** (1)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 (2)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교제라기 보다는 성도 상호간의 교제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빛 가운데서 행한 첫번째 결과이다.

- (3) 그 두번째 결과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것인데, 예수의 피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히 9:13, 14).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赦)함이 없기 때문이다(히 9:22, 참조, 레 17:11).
- (4) 한편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 (헬, 카타리제이)는 말은 원어에서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정결케 되면 계속해서 정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한 번 흘린 보혈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뜻이다.
- (5) 그러므로 이미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 성도는 즐거움 가운데서 성도 상호간의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히 3:13).

#### 10. ㉠ 죄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8절)

- ㉠ (1)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그들 속에 없는 자들이다.
- (2) 한편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떠난 자라고 하였다.
- (3)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은 본래 죄의 종(참조, 롬 1:18; 3:9; 6:17)이라고 말함으로써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하더라도 그는 죄인이며 다만 그리스도의 피로써(1:7) 그 죄를 용서받은 자이다(엡 4:32). 그렇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참조, 롬 4:2).

#### 11. ㉠ 죄를 자백한 결과는 무엇인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赦)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 (2)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는 의미로서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참조, 고전 1:9; 히 10:23). 또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이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반드시 벌하신다(렘 21:14).
- (3) 즉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롬 3:21-25).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참조, 신 30:1-4) 죄를 자백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 (4)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무턱대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역시 아무나 사랑하고 보호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는 징계하고 권고해야 하며 그들이 잘못에서 돌이킬 때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참조, 눅 15:11-24).

#### 12. ㉠ '우리가 범죄(犯罪)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1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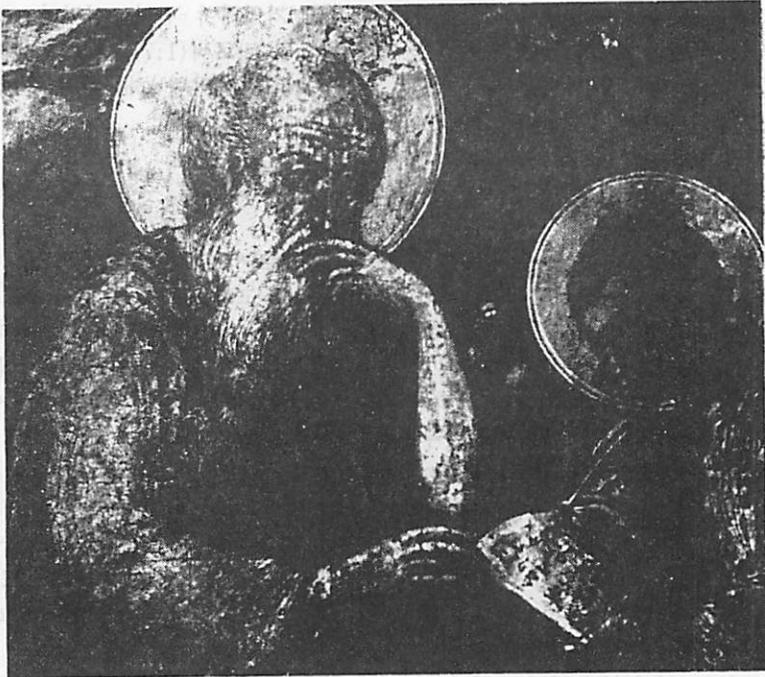
- ㉠ (1)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자들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은 자들이다.
- (2) 그런데 '죄없다' (8절)는 것이 죄 자체, 즉 원죄(原罪)를 부인하는 것인 반면에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죄성(罪性)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말한다.
- (3) 이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켰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 (4) 또한 이들은 '죄' (헬,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죄의, 원어적인 뜻은 '과녁을 벗어나다'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5) 그러므로 당시의 국가법이든 사회법이든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는 죄가 되는 것이다(참조, 눅 15:21).

(6) 위의 사실을 볼 때에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그 사실을 은닉할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용서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화보자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그의 서기에게 본서신을 받아쓰게 하는 장면이다. 19세기경의 그리이스 성화(聖畵)이다.



본서신의 저자는 요한복음과 요한이서, 삼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과 동일 인물이다. 혹자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본서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한 내적 증거로는 첫째, 본서신이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로고스(Logos, 말씀)'에 관하여 두드러지게 증거하고 있다는 점(1-3절; 요1:1-3). 둘째, 본서신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랑이 요한복음과 요한이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다는 점(4:7-21; 요13:34, 35; 요1:1:5, 6) 등을 들 수 있다.

## 제 2 장 그리스도와의 교제

단락구분 1-2 대언자이신 그리스도 / 3-6 광함과 믿음 / 7-14 영원한 계명 / 15-17 세상을 사랑치 말라 / 18-23 적그리스도의 출현 / 24-29 주 안에서 생함

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3 우리가 그의 제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제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7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제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제명이니 이 옛 제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제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10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1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13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름 알았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14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름 알았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니라

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8 아이들이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쁨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앎을 인함으로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라

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26 너희를 미혹케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쁨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

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 자녀들이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라.

- ㉠ (1) 앞장에서 자신이 목격한 그리스도를 소개한 요한은 본장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속출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대처할 것을 말하고 있다.  
 (2) 그런데 요한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방법으로 사랑의 실천을 당부한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실천할 때 적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22, 23절; 5:1-3).  
 (3) 여기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난무(亂舞)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지키려는 요한의 파수군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속출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때에 성도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신과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지켜 나가야 한다(참조, 벧후 3:17).

2. ㉠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서 대언(代言)해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1절)

- ㉠ (1) 우리의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다.  
 (2) 여기서 ‘대언자’(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보혜사(保惠師, 요 14:16; 15:26; 16:7)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옹호자’, ‘위로자’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옹호하여 하나님께 대신 변호해 주신다는 의미이다(참조, 히 2:18).  
 (3) 한편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참조, 삼상 6:20; 스 9:15; 시 130:3; 말 3:2; 계 6:17),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롬 6:23).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5)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담력을 얻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28절; 3:21; 4:17; 히 4:16).

3. ㉠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절)

- ㉠ (1) 그는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和睦祭物)이라 하였다.  
 (2) 화목 제물이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속죄(贖罪)하는 제물을 의미한다(참조, 롬 3:25; 고후 5:18, 19).  
 (3) 한편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짐승으로 속죄하였으나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사용된 불완전한 방법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었다(히 9:11-14).  
 (4) 그러므로 이 화목 제물이란 결국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희생과 고통을 의미한다.  
 (5)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다(마 16:24). 이것은 고통과 자기 희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좇는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복받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4. ㉠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3절)

- ㉠ (1) 그리스도의 계명(誡命)을 지켜야 한다.  
 (2)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 14:15;15:10).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계명은 단순히 십계명(출 20:1-17)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사랑의 행위로 행해져야만 한다.

- (3) 한 예로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더불어 밀밭 길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마 12:1-8)이나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신 사건(마 12:9-1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 20:8)는 제 4계명을 어긴 것이라기 보다 인간을 귀하게 보시는 사랑의 행위였다.
- (4)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율법에 얽매인 문자적인 계명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계명(롬 13:10)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5. **㉠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인가? (4절)**

- ㉠** (1)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이다.
- (2) 여기서 ‘안다’(헬, 기노스코)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 (3) 한 예로 마리아는 자신의 수태(受胎)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자신은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때 ‘안다’(헬, 기노스코)는 말은 부부 사이의 성적(性的)인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강한 실천적인 면을 말해 주고 있다.
- (4)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자는 당연히 그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라야 한다. 반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자격이 없으며 결국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상(身上)에 대한 외적(外的)인 몇 개의 지식만으로 신자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있으며 참신자가 될 수 있다.

6. **㉠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절)**

- ㉠** (1)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 안에서 온전(穩全)케 되어 그 결과로 신자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 (2) 여기서 온전케 된다는 것은 완성한다는 말로서 신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 (3) 다시 말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셨다(요 13:34).
- (4)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신자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온 세상을 위해 돌아가신(2:2)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다.

7. **㉠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6절)**

- ㉠** (1)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 (2) 사실 그리스도는 인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목숨까지 버리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상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이다. 그가 병자를 고치신 것도(마 9:35, 36),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신 것도(마 15:32-39), 복음을 전하신 것도, 심지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도 사랑의 행위이다(3:16).
- (3)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아무리 좋은 말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는 행위는 무익하다고 말하였다(고전 13:1-13).
- (4)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8. **㉠ 요한은 왜 사랑의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하였는가? (7절)**

- ㉠** (1) 이 계명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이라고 소개되었기 때문에(요 13:34) 여기서는

옛 계명이라고 하였다.

- (2) 한편 이 사랑의 계명은 이미 구약 시대의 율법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즉 빛을 탐감해 주는 면제의 규례(신 15:1-11)나 중을 해방시켜 주기 위한 규례(신 15:12-18),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한 규례(신 24:19-22) 및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는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 (3) 이것을 볼 때 사랑의 계명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에게 와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성된 것이다(참조, 마 5:17; 22:36-40).
- (4) 그러므로 이 사랑의 계명은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온 계명이다. 다만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천적인 면에서 새롭게 완성된 것이다. 결국 사랑의 계명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새롭게 해석되고 완성된 것과 같이(참조, 마 12:1-13) 오늘날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9. **㉠** 요한이 사랑의 계명, 즉 새 계명을 쓰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8절)

- ㉠** (1) 7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전한 것이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구약 시대) 전해 오던 옛 계명이라 했다. 그런데 갑자기 본절에서는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반복 주장했다.
- (2) 즉 그가 전한 계명은 새롭지 않은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분명 새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계명'은 분명 동일한 것이지만 옛부터 전해졌다는 연속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이 '옛 계명'이요, 옛부터 전해진 그 계명이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새 계명'이다.
- (3) 한편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진부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진부한 것만 아니라 '새 계명'이기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그 내용을 써 보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었기 때문이다. 즉 사랑의 계명을 언급했었던 구약 시대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세상에 편만해 있기 때문에 '새 계명'에 관한 글을 쓰게 된 것이다.

10. **㉠**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9절)

- ㉠** (1) 그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이다.
- (2)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교제한다는 말이기 때문에(참조, 1:7)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 형제에게 나누워 주어야 한다(참조, 4:16, 21).
- (3) 한편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는 자라 하더라도 형제를 미워한 자는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그의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마 5:22-24).
- (4)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우선되는 증거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는 주위의 형제나 이웃과는 불화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나 다름 바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4:20).

11. **㉠**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증거는 무엇인가? (10절)

- ㉠** (1) 그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 (2) 이것은 자신의 행동이 자기 마음속에서, 즉 양심으로도 거리낌이 없고 또 상대방에게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3)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자기 자신의 신앙이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실족시킬 우려가 있으면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참조, 고전 8:

1-13).

- (4)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해서 비록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 약한 상대방을 실족시킬 우려가 있으면 주의해서 행동해야 한다.

12. **㉠**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두운 가운데 머물면서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2) 여기서 '어두움이 눈을 멀게 하였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보여 준 참사랑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에 얽매인 형식적인 사랑만을 고집한다는 뜻이다.  
 (3) 그래서 이런 자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구제하고서도 나팔을 불고 광고하여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 자들이다(마 6:2).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은밀하게 행해질 것을 요구한다(마 6:3). 바울도 사랑 없이 행하는 구제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였다(고전 13:3).  
 (4) 그러므로 신분이나 지위, 환경 때문에 형식적인 선행과 사랑을 베푸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고 어두운 가운데 머무는 자이다.

13. **㉠** 요한이 수신자에게 사용한 호칭에 대해 설명하라 (12-14절).

- ㉠** (1) 그는 수신자에게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청년(青年)들아'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2) 이 호칭들은 모두 다 일반 교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녀들은 신앙적으로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자이며 아버지들은 교회의 연장자(年長者)들을 가리킨다. 또 청년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3) 이처럼 요한이 수신자를 구분한 이유는 신앙의 수준이 다른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은 수신자의 신앙 수준에 맞게 교훈을 주고 있다.  
 (4) 이와 같이 교회에는 신앙 정도가 각기 다른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신앙 수준에 맞는 교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신자들의 신앙 정도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그들에게 맞는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한다.

14. **㉠** 요한은 초신자(初信者)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12절)

- ㉠** (1) 요한은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赦)함을 받았다고 했다.  
 (2) 요한이 초신자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은 신앙의 첫 단계가 죄와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공생애(公生涯) 처음에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마 4:17).  
 (3) 교회의 직무는 예배, 봉사, 전도, 교육이다. 그러나 초신자에게 있어서 우선 되는 것은 자신의 신앙 문제이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15. **㉠** 요한이 성숙한 신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13, 14절)

- ㉠** (1) 요한은 그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하였다.  
 (2)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실천적인 것으로 성숙한 신자는 태초부터 계신 이, 즉 그리스도요(1:1) 또한 하나님이신(빌 2:6) 전능자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세력, 즉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일에 몸소 나서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한편 초신자가 자신의 개인 신앙에 주력하는 반면에 성숙한 신자는 몸소 행동하는 신자이다. 그런데 이 행동은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것이요(엡 6:12) 또 육적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엡 2:2)과 싸우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성숙한 신자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全身甲冑)를 입고(엡 6:13)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마 26:41) 나아가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부조리하고 모순된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 몸소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16. **㉠**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15절)

- Ⓐ (1) 이것은 세상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 (2)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뒤 매우 기뻐하셨고(창 1:31), 바울도 땅과 거기 거하는 것이 주(主)의 것(고전 10:26)이라고 하여 세상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
- (3) 그러므로 이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이 아닌 악이 지배하는 영역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신자는 이 악한 영역까지 침투하여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참조, 마 6:33).

17. ⓐ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眼目)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다.
- (2) 즉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의 욕심(엡 2:3), 즉 죄악된 욕망(갈 5:19-21)을 가리킨다(참조, 잠 7:7-23).
- (3) 또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하여서 범죄하는 것으로서 보이는 대로 모두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말하며(창 3:1-6),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낙(樂)을 두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을 의미한다(눅 12:19).
- (4) 이상의 사실들을 볼 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기 때문에(갈 5:24)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갈 5:22).

18. ⓐ 이 세상을 사랑치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이 세상이나 그 정욕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이다.
- (2) 즉 이 세상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참조, 약 5:14; 벧전 1:24) 자기에게만 만족을 주지만 주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행위는 남에게 덕을 끼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13:8, 13).
- (3)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자만이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19. ⓐ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18절)

- Ⓐ (1) 마지막 때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 (2) 마지막 때란 말세(末世)를 뜻하며 넓게는 그리스도의 초림(初臨) 이후 시대를 가리키고(사 2:2; 행 2:17; 히 1:2) 좁게는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 이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인하며 갖가지 이적으로 믿는 자를 유혹하여 거짓된 신앙을 갖도록 한다(마 24:23, 24).
- (3) 그러므로 갖가지 기사(奇事)와 이적(異蹟)을 행하는 자가 모두 다 참진리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를 증거하는 자가 참신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 ⓐ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19절)

- Ⓐ (1) 이들은 처음에 교회 안에 있었으나 나중에는 여기서 나가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 (2)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다른 종교를 믿는 자나 혹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자가 아니라 바로 사이비 교인(似而非敎人)들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교회 내부에 있다고 해서 모두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는 교회 외부의 어떤 세력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력

들이다. 결국 이들은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본질상 기독교인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1. **㉠** 우리가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0절)

- ㉠** (1)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알 수 있다.  
 (2) 한편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으로 취임할 때(삼상 9:16; 16:13; 대상 11:3),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출 29:7),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왕상 19:16) 행해지는 의식으로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는 의미를 갖는데 본절에서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의미로서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3) 그러므로 거룩한 자에게 속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에게 속한 자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요 17:14, 16).

22. **㉠**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인가? (22, 23절)

- ㉠** (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이다.  
 (2) 예수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사이의 부자(父子) 관계를 부인하는 것과 꼭 같은데 바로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또 아들을 시인(是認)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참조, 요 10:31; 12:44, 45).  
 (3)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들처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의 인성을 부인한 다거나, 현대 자유주의자들처럼 그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4) 이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서(참조, 요 17:21),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확립하고 도처에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위협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23. **㉠**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했는가? (24절)

- ㉠** (1) 그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자신들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2)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나온 사도적 교훈으로서 이것은 기독교 초창기 때부터 형성된 것이다.  
 (3) 그러나 새로운 사상에 매력을 느낀 자들은 이러한 초창기의 복음을 무시하고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에 빠져 버렸다.  
 (4) 한편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언약, 즉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하시던 하나님의 옛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가나안 땅의 새 신(神)이나 새 관습을 좇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신 32장) 이것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무르라는 뜻이다.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새로운 사상과 새 신앙에 연연(戀戀)해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 신앙을 가질 때 받았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진리에 계속해서 머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24.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25절)

- ㉠** (1) 우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롬 4:21).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창 12:1-7)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었지만 결국 그 약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함으로써 완전히 성취되었다.  
 (3)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반드시 성취되는데(고후 1:20) 그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많은 환난(患難)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고후 4:17; 벧전 4:12, 13).
- (5)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성도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후 7:1).

25. **㉠** 요한이 본서신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미혹(迷惑)케 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26절)

- ㉠** (1) 그는 미혹케 하는 자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하였다(24, 25절).
- (2) 여기서 '미혹케 하다' 라는 말은 '스스로 속이다' (1:8), '타락시키다', '실족시키다' 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말은 양 떼가 이리에게 누탈당할 때 양 떼를 버려 두고 도망감으로써 양 떼들을 실족시키고 스스로를 속이는 삿군 목자(요 10:12)의 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 (3) 그러나 참목자는 양 떼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자이며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 아흔 아홉 마리를 버려 두고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자이다(마 18:12; 눅 15:4).
- (4) 이것을 볼 때 진정한 목회자는 한 사람의 성도라도 미혹자들로부터 유혹받지 않도록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6. **㉠**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28절)

- ㉠** (1) 그것은 주께서 강림(降臨)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서는 데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 (2) 한편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하여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갖은 박해를 견디었다(참조, 히 12:35-40). 또 바울도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깨어서 근신(謹愼)할 것을 당부하고(살전 5장) 있는데 결국 이것들은 모두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말한다.
- (3) 이같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박해와 고난과 유혹이 뒤따르지만 주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박해나 고난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한다(벧후 3:11, 12).

27. **㉠**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29절)

- ㉠** (1) 그는 의(義)를 행하여야 한다.
- (2) 하나님은 의로우시며(1:9; 시 119:137; 145:17) 공평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선하다고 판단하시며 불의한 것을 악하다고 판단하신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 (3) 그래서 엘리야에게 선행을 베푼 사르밧 성의 과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았으며(왕상 17:1-16), 밧세바를 범(犯)한 다윗은 범죄의 대가로 말년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위기를 당하였다(삼하 15, 20장).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義)는 공평하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사회적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의 엄하신 공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 그가 의로우심과 같이 의를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 3 장 하나님의 자녀들

단락구분 1-3 자기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 / 4-9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치 않음 / 10-12 하나님 자녀의 특징 / 13-19 사랑과 희생 / 20-24 확신으로 이끄는 순종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도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불 것을 인함이니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9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음이라

10 이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 가인같이 하지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었느냐 자

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13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나

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20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나

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라.

㉠ (1)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그의 사랑을 확인한 자이기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2)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의를 행치 아니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로서 이는 그 형

제를 살인한 자나 다름 바가 없다.

- (3)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의 완성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서(롬13:10)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2. **㉠**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1절)

- ㉠** (1) 이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2)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나(엡2:3)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세상, 즉 불신 세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알지 못한다.
- (3)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위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도와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것이다(참조, 삼상17장).
- (4) 이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의 자녀들을 알지 못하고 그 자녀들을 괴롭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히13:6).

3. **㉠** 하나님의 자녀는 장래에 어떻게 되는가? (2절)

- ㉠** (1) 하나님의 자녀는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 (2) 즉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데(빌3:21) 이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성을 회복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더 이상 어떤 피조물이나 심지어 같은 인간들로부터도 지배받지 않는 원래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참조, 창1:27, 28; 2:15).
- (3) 그러나 이러한 타락 이전의 완전한 상태는 사실상 이 땅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못하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에게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 (4)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것이 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마6:10).

4. **㉠**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리라는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절)

- ㉠** (1) 그는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이다.
- (2)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된 행실이나 또는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거짓된 신앙 생활에서 돌이키는 도덕적인 삶을 의미한다.
- (3) 예를 들면 다윗은 부도덕한 죄를 짓고 나서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눈물로써 회개하였으며(시51편),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 하여 신자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당부하였다(약4:17).
- (4) 이와 같이 주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구원을 이루시는 주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빌2:13) 각각 자신을 돌아보며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야 한다(빌2:4).

5. **㉠** 죄의 속성은 무엇인가? (4절)

- ㉠** (1) 죄는 불법(不法)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 (2) 불법이라는 말의 원어는 (아노미아)로서 (노모스), 즉 '율법'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 (3)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곧 범죄하는 자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전9:21).

(4)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5) 이와 같이 신자들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갈5:1-6)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불법이요 죄이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무적이고 형식적이 아닌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 나가야 한다.

6. **㉠** 주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5절)

- ㉠** (1) 그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2) 그가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신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속(代贖)할 수 있는 첫번째 요건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다(참조, 레1:3; 민6:14).  
 (3)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사함 받는 대속죄일에는 흠 없는 수컷(민29:8)이 속죄 제물로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암시하는 것이었다(히9장).  
 (4) 한편 흠 없는 의로운 자가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의 행위이다(롬5:6-8).  
 (5) 그러므로 신자들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여야 한다.

7. **㉠**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6절)

- ㉠** (1)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2) 반면에 1:8-2:2에서 요한은 성도도 범죄하기 때문에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본절의 사상과 상반되는 말을 하고 있다.  
 (3) 그래서 이 두 사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지 아니한다(Lange, Smith)는 해석이 가장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성경 원어인 <우크 하마르타네이>, 즉 '범죄하지 아니한다'가 현재형으로 계속적인 습관이나 반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4) 뿐만 아니라 요한은 5:16, 17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구분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의 죄는 회개함으로써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그러나 우리는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형제를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롬14:10; 고전4:5)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딤후2:1).

8. **㉠** 어떤 자가 의로운 자인가? (7절)

- ㉠** (1)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이다.  
 (2) 한편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볼 때(막6:14-29)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잘 알 수 있다.  
 (3)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을 때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행실(막6:17)을 지적하였고 그 일로 생명을 잃게 되었다.  
 (4) 이와 같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의를 행해야 한다.

9. **㉠** 마귀는 어떤 자인가? (8절)

- ㉠** (1)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다.

- (2)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태초부터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가 최초의 범죄자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뜻이다.
- (3) 한편 마귀의 히브리어인 <쉐드>는 형제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며 헬라어인 <디아블로스>는 형제의 참소자(讒訴者)라는 뜻으로(계12:10)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를 대적하여 심판 날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참조, 욥1:6-12; 유1:9).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증보자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히8:12; 10:17).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를 참소하고 대적함으로 그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

10. **㉠** 하나님께서 난 자가 범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이다.
- (2) 하나님의 씨는 그의 말씀(벧전1:23)이나 그리스도(갈3:19)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서는 성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따라서 성령을 소유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 이것은 성령을 소유한 자가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 때에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범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1:8-10).
- (4) 그러므로 성령을 소유한 자도 순간적인 실수로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성도들은 범죄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하지만 자신의 범죄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죄로부터 빨리 돌아야 한다(2:1, 2; 삼하12:1-15; 시51편).

11. **㉠**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10, 11절)

- ㉠** (1)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를 행치 아니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이다.
- (2) 이들은 각각 그 행위로써 그들의 신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열매로써 나무를 알 수 있는 것과 꼭 같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마7:16-20).
- (3)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마귀의 자녀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라도 어느 한 쪽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로써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마7:21)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마7:24).

12. **㉠**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 (2) 가인은 하나님께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창4:1-5).
- (3) 가인의 제사가 곡물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가 피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라기 보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히11:4). 결국 가인은 믿음으로써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였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예배는 제물의 종류나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참조, 요4:24; 롬12:1).

13. **㉠**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무엇인가? (13-15절)

- ㉠** (1)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게 된다.
- (2)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인데, 예수께서는 그 형제에게 노하

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마5:21, 22). 결국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그 형제를 살인한 자와 다를 바 없으며 그 결과는 사망인 것이다(롬6:23).

- (3) 예를 들면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미워하였으며 결국 그 미움은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창4:6-8).
- (4) 그러므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지만 그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14절).

14. **㉠**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왜 마땅한가? (16절)

- ㉠** (1)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가장 큰 사랑의 행위인데 그래서 그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다(요15:13).
- (3) 사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善人)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거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롬5:6-8).
- (4) 이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형제를 아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나단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다윗을 돌보아 주었던 것이다(삼상20:30-34).

15. **㉠**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7, 18절)

- ㉠** (1) 그는 궁핍(窮乏)한 형제를 볼 때 자신의 재물(財物)로써 그 형제를 도와 주어야 한다.
- (2) 재물을 가진 자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도 그를 도와 주지 않으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것과 똑같다.
- (3) 그래서 야고보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日用)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써만 걱정해 주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였다(약2:15, 16).
- (4)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말과 혀로써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16. **㉠**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9, 20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더 크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 (2) 하나님의 자녀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리를 행하여야 하는데 사실 진리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하물며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땐 어떠하시겠는가?
- (3)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알아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고(엡4:27)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7. **㉠**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자는 신앙 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21, 22절)

- ㉠** (1)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된다.
- (2)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그 행실에 거리낌이 없는 자는 없다. 그러나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20절).
- (3) 또한 이런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면서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 (4)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24절; 참조, 요15:7).

18. **㉠**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23절)

- ㉠** (1)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2) 한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히 상대방을 가리키기 위해서 부르는 호칭 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출20:7)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꼭 같기 때문이었다.  
 (3)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데 바로 이분을 믿는 자는 모든 율법의 완성인(롬3:10) 사랑의 계명(요13:34), 즉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10, 11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다.

19. **㉠**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4절)

- ㉠** (1)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4:13).  
 (2)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인데 이러한 사실은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심으로써 알 수 있다(롬8:16).  
 (3) 그러나 성령의 증거는 우리가 외적으로 느낄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靈)에게 직접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다(롬8:16; 갈4:6).  
 (4)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행하는 여부를 보아 알 수 있다.

연구자료

사형 제도의 존폐(存廢) 문제에 대하여. 현대에 이르러 사형 제도의 존폐 문제는 세계적으로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자들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인간의 생명은 가장 고귀한 것으로 국가나 타인이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이를 찬성하는 자들은 죄와 벌의 평형 원칙을 들면서 범죄자가 타인과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쳤을 경우에 한해선 그에 상응하는 최고의 벌을 가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에 관한 성경적 견해는 어떠한 것일까? 한마디로 말해 규범적인 측면에 있어서 만큼은 사형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하겠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사형 제도는 시행되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하신 것만 봐도 그분께서 친히 사형 제도를 인정하셨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의 질서 유지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권력자를 세우셨다(롬13:1).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통치자와 국가 법에 마땅히 순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형 제도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개인의 사리 사욕과 이해 관계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사라져 버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를 방치하시겠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렘17:10).

## 제 4 장 사랑이신 하나님

단락구분 1-6 영(靈)을 분별하라 / 7-12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13-16 성령께서 증거하심 / 17-21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1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2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 자녀들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5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할때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7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를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 우리가 이 제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요한은 전장(前章)에서 사랑의 실질을 말한 뒤 본장에서 영들을 시험할 것과 하나님의 사랑 및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2) 한편 요한은 본장에서 특별히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매우 심오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장을 '바울의 사랑 장'(고전 13장)에 이어 '제 2의 사랑 장'(章)이라고도 부른다.

- (3)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獨生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말함으로써 사랑의 본질이 희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희생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참조, 행 1:8).

2. **㉠ 왜 영들을 시험해야 하는가? (1절)**

- ㉠** (1)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참선지자와 똑같이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외형으로써는 구분할 수 없으며(마 7:15) 단지 그들의 열매, 즉 그들의 윤리적인 행위로써 판단할 수 있다(3:10; 마 7:16).
- (3) 한편 오늘날 행해지는 방언, 병 고침 예언과 같은 영적 운동(靈的運動) 중에는 신령(神靈)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 운동을 가장하여 자신의 사욕을 채우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영적인 것일수록 그것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고전 12:10).

3. **㉠ 하나님께 속한 영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2, 3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 (2) 여기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경고하고 있는데, 초대 교부인 이레니우스(Irenaeus, 140-200)나, 오리겐(Origen, 185-254)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바로 예수를 멸망시키는 영이라고까지 말했다.
- (3) 한편 '시인한다'는 말은 원래 '고백한다'는 말인데 이는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줄 아는 그런 상태(막 1:24; 행 19:15)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신앙으로 고백하는 상태(마 16:16)를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영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이며 또 사도 신경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사실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이다.

4. **㉠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이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 (2)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만유(萬有)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뜻이다(요 10:29).
- (3)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멸망시키려던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 놓으신 승리의 전쟁에 동참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요 16:33).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롬 8:31) 승리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엡 6:12, 13).

5. **㉠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6절)**

- ㉠** (1)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 (2)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公生涯)에 참여하여 3년 동안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운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가 하는 말이나 그의 교훈들, 즉 그리스도를 주의하라는 경고는 곧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들이 대언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 (3) 한편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代言) 하는 자로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拒逆) 하는 자와 똑같이 취급받았다(참조, 쥬 2:4, 7; 3:27).
- (4) 이와 같이 사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오늘날 신실한 목회자들도 그리스도의 대언자들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들의 말씀에 귀기울여야 한다.

#### 6. ㉠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7, 8절)

- ㉠ (1)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 (2)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으며(신 7:8; 렘 31:3) 또 신약 시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요 3:16; 롬 5:8).
- (3)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말은 단순한 이론이나 관념(觀念)이 아니라 하나의 구체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그런데 이 사랑의 행위는 이성간의 사랑, 즉 ‘에로스’나 친구 사이의 우정, 즉 ‘필로스’가 아니라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사랑, 즉 ‘아가페’를 의미한다.
- (5)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셨다(쥬 20:15-17). 또한 죄지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역시 사랑의 행위로서(롬 5:8) 이것들은 모두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3:18).

#### 7. ㉠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獨生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 10절)

- ㉠ (1)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아들들을 화목 제물(和睦祭物)로 사용하셨음을 의미한다.
- (2)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죄없으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 주신 그것이다.
- (3)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롬 5:8), 이와 반대되는 경우를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까지 희생시킬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다(창 22:1-14).
- (4) 이와 같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나 인간 편에서나 다 같이 회생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까지라도 다 희생시킬 각오를 하여야 한다.

#### 8. ㉠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11, 12절)

- ㉠ (1)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 (2)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한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였다(참조, 20절; 마 15:1-6; 막 7:10-13).

#### 9. ㉠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是認)한 결과는 무엇인가? (14, 15절)

- Ⓐ (1)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 (2)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마음속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 (3)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실 것이라고 하였다(마 10:32; 눅 12:8).
- (4)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과 시련이 따르다 해도 그의 삶이 시인하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가 아니라(딤후 1:16), 끝까지 참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으로써 마지막 날에 주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딤후 2:12).

10. ㉠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16절)

- Ⓐ (1)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다.
- (2) 여기서 요한은 지식이 믿음보다 선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 지식보다 선행(先行)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요 6:69).
- (3) 그러나 지식과 믿음은 어느 것이 먼저 되고 어느 것이 나중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알게 되고 또 압으로써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다.
- (4) 또 여기서 ‘알다’와 ‘믿는다’는 동사는 둘 다 완료형으로서 과거의 사실이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뜻이지 전후(前後)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 (5) 뿐만 아니라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안[知] 뒤에 행한다는 뜻으로 믿음의 행위와 같은 의미를 수반하고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지식과 믿음의 결합체로서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11. ㉠ 심판 날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이는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주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 (2) 사람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하나님이신(요 14:10, 11)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런 자는 날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를 본받기 위해 애쓴다.
- (3) 이렇게 그리스도가 소유한 것과 똑같은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자는 주를 닮은 자요 또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이다(2:28; 3:21).
- (4) 뿐만 아니라 이런 자는 이 세상에서 심판 날과 같은 엄청나게 어렵고 무서운 상황이 닥쳐 오더라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12. ㉠ 두려움을 갖는 자는 어떤 자인가? (18절)

- Ⓐ (1) 그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자이다.
- (2)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8, 16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며 결국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며 결국 그는 심판의 형벌로 인해 두려움을 갖게 된다.
- (3)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심판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도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는 이런 심판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참조, 롬 8:38, 39).

13. ㉠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19절)

- Ⓐ (1)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 (2) 흔히 사랑은 인간의 본능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본성적인 사랑도 있다(참조, 삼하 12:16; 왕상 3:26).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즉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참조, 요 15:13; 갈 2:20).
- (3)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이에게 이러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으나(참조, 요 21:15-17) 이러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14. ㉠ 어떤 자가 거짓말하는 자인가? (20절)

- ㉠ (1)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다.
- (2) 이외에도 요한은 죄없다고 하는 자(1:10),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2:4),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5:10)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한다.
- (3)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잠 12:22), 멸망당하며(시 5:6), 마지막 심판 날에는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계 22:15).
- (4) 위의 사실들을 볼 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와 똑같이 죄짓는 자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마 25:34-40).

#### 15. ㉠ 우리가 주께 받은 계명(誡命)은 무엇인가? (21절)

- ㉠ (1)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예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계명의 전부라고 가르치셨다(참조, 막 12:19-31). 그러므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모든 계명을 지키는 길인 것이다.
- (3) 그러나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곧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며(20절), 그때에 우리는 주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다.

### 본장의 요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8절).

## 제 5 장 하나님께서 난 자

단락구분 1-3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м / 4-5 세상을 이기는 믿음 / 6-9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 / 10 자기 안의 내적 증거 / 11-12 아들 속에 있는 영생 / 13-15 응답의 약속 / 16-17 중보의 기도 / 18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되지 않음 / 19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 20-21 참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그리스도

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6 이는 물과 피로 입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입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4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6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18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21 자녀들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본서신의 마지막 장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 형제를 위해 중보 기도할 것과 우상을 피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요한이 본장의 전반부에서 1-4장에 기록한 내용들을 반복한 이유는 본서신을 끝맺으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수신자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고 전통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후반부에서 형제를 위한 중보 기도와 우상에서 떠날 것을 당부한 것은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다.

- (3) 위의 사실들을 볼 때 본서신의 결론부인 본장에는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흐려지고 성도들이 온통 미혹받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며 성도들을 지키려는 요한의 뜨거운 열정이 잘 나타나 있다.

## 2. ㉠ 하나님께서 난 자는 어떤 자인가? (1절)

- ㉠ (1) 그는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로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이다.  
 (2)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이다.  
 (3) 한편 요한이 2:29에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결국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율법은 사랑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이다(롬 13:8-10).  
 (4) 따라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 3. ㉡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일인가? (3절)

- ㉡ (1)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2)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야 한다는 사실(참조, 3:20; 4:2; 요 15:13; 롬 13:8-10)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는 것만은 아니다.  
 (3)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4:19)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다.  
 (4)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의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을 것이다(참조, 마 11:30).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가볍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 4. ㉢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4, 5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2) 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참조, 4:4).  
 (3) 그래서 이런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욕심,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2:16)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이다.  
 (4)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 5. ㉣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臨)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6절)

- ㉣ (1)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으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의 공생애 전체를 말한다는 학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Tertullian, Alford, Meyer, Vincent 등).  
 (2) 그런데 요한이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신성(神性)을 지닌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의 세례시(時)에 예수에게 강림했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를 떠났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의 일파인 케린투스(Cerinthus, 1-2C)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 (3)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세례받으실 때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일어난 일들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4) 즉 예수께서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마 3:17; 눅 3:22)고 하셨으며, 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 예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마 27:46)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 (5)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사역(事役)의 처음인 세례시(時)부터 사역의 마지막인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일하셨다.

6. **㉠**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7, 8절)**

- ㉡** (1)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이다.
- (2) 한편 예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에 성령께서 자신을 증거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5:26; 16:13, 14) 진리인 성령께서는 (7절) 진리이신 그리스도(요 14:6)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 (3)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은 특히 그리스도의 수태(受胎)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눅 1:35). 또한 예수의 세례와 십자가 사건 역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 (4) 위의 사실을 볼 때 히브리인의 관례대로 두 사람의 증거도 완전한데(참조, 신 17:6; 마 18:16; 요 8:17) 이 셋, 즉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는 가장 완전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요소인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와 물과 피의 외적인 증거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

7. **㉠**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9, 10절)**

- ㉡** (1)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내적인 증거로 알 수 있다.
- (2) 한편 세상 일에 있어서도 두 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일은 사실로 인정받게 된다(마 18:16; 요 8:17). 하물며 성령과 물과 피로써 증거하시는(8절)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확실한 것이다(마 3:17).
- (3)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참조, 요 5:38) 그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마 16:16; 26:61-64; 롬 1:4).
- (4)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적으로 확신을 갖게 될 때 가능한 것이다.

8. **㉠**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증거해 주신 내용은 무엇인가? (11, 12절)**

- ㉡** (1)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永生)을 주신 사실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이다.
- (2) 여기서 영생이란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생명(2:15-17, 25; 3:2; 요 4:36; 6:27; 12:25)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누리는 현재의 생명력(요 5:24; 6:47, 54)을 의미한다.
- (3)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영생은 세상 사람들에게나 또 그리스도인에게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개개인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현재 이 땅에서 이미 생명력, 즉 영생을 소유하였

다는 사실을 알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야 한다(참조, 행 9:23-30; 고후 12:23-27).

9. **㉠** 요한이 본서신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13절)

- ㉠** (1)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수신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2) 그는 본서신의 첫 장(1:3, 4)에서도 본서신을 쓰는 목적을 말한 적이 있는데, 끝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를 밝히고 있다.  
 (3) 한편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요한은 복음서의 끝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요 20:31).  
 (4) 위의 사실들을 볼 때 요한이 서신이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한결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5)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성도와 더불어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원했다.  
 (6) 이와 같이 요한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가지고서 기쁨의 생활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10. **㉠**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14절)

- ㉠** (1)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2) 한편 요한은 복음서에서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16:24)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3)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은 아니다(약 4:3).  
 (4)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겔사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것이다(막 14:36).  
 (5)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마 6:10, 33).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다.

11. **㉠**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15절)

- ㉠** (1) 기도하는 자는 그에게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여겨야 한다.  
 (2) 여기서 이미 받았다는 말은 어떤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헬라이어 <엠펀>에 의하면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3) 그래서 예수께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현재에 받는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것이다.  
 (4)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불확신하는 가운데서 아무 기도나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믿고 확신과 기쁨으로 기도해야 한다.

12. **㉠**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16절)

- ㉠** (1)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2) 신자가 해야 될 기도가 많이 있지만, 요한은 여기서 특별히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3)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가 구원을 받기 원했다. 반면에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당부하지 않았다.  
 (4) 한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Alford, Brooke, Clarke)라고 보

는 것이 일반적이다.

- (5) 이상의 사실을 볼 때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조, 창 18:22-33; 겔 22:30, 31).

13. **㉠**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6절)

- ㉠** (1) 여기서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 (2) 그러나 12절에서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마12:31에서 마태는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 (3)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도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막고 훼방하는 것이다.
- (4) 결국 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 (5) 이와 같은 실례(實例)를 우리는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에 대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한 바리새인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마 12:24-31; 참조, 삼상 15:23).

14. **㉠** 어떤 경우에 그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가? (17절)

- ㉠** (1) 모든 불의(不義)가 다 죄이기 때문에(참조, 3:4) 그 결과는 사망이다(롬 6:23).
- (2) 그러나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때 그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자백하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1:9).
- (4) 그래서 예수는 탕자의 비유(눅 15:11-32)를 통해서 죄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말해 주시는데 이것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15. **㉠** 신자들이 습관적으로 범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18절)

- ㉠** (1)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신자를 지키시므로 악한 자가 신자를 만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 (2)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요 16:33)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요 17:12).
- (3) 그러나 예수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가르치셨다(마 6:13; 요 17:15).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심으로 인해 범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16. **㉠** 요한이 본서신 마지막 부분에서 끝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19-21절)

- ㉠** (1)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도에 의하여 깨닫기 때문에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여야 한다.
- (2) 여기서 우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즉 우상이란 사람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빚어서 만든 물건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물질, 명예, 사상 등을 포함한다.
- (3)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며(출 20:4; 레 26:1), 섬기지도 말고(신 11:16) 혹 이미 만들어진 우상은 불사르라고 명령하셨다(신 7:25).
- (4)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며(참조, 신 4:48), 환난 날에 그 숭배자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롬 1:22, 23).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이외에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는 여러 우상들을 버리고 거기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에게만 경배드려야 한다(참조, 사 42:8).